

## B-1. Implant placement using GBR(guided bone regeneration) technique

조규태, 양승민, 설양조, 계승범, 이영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의료원 치과진료부 치주과

### 연구 배경

임플란트 요법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날 예후성 높은 치료법으로 정착되어 왔다. 임플란트의 성공은 매식 부위의 골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심미적, 기능적인 면에서 보다 나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매식부의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조직유도재생술(GTR)의 원리를 이용하여, 차단막으로 골재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조골세포의 선택적 증식을 통하여 골생성을 유도하는 골유도재생술(GBR)이 등장하게 되었다.

골유도재생술의 적응증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의 골열개, 천공, 국소적 치조제 증대, 발치후 즉시식립 임플란트 등이 있다. 골유도재생술의 방법에는, 이를 이용하는 시기에 따라 임플란트 식립과 병용하는 동시법과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치조제를 증대시키는 2단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동시법은 환자에게 치료기간과 수술횟수를 줄여주는 면에서 유리하지만, 초기 고정 확보, 보철적으로 적당한 위치에 식립 가능 여부,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 골결손 등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시행할 수 있다.

### 연구방법 및 재료

삼성의료원에 내원한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골유도재생술을 이용하여 각각의 증례에 따라 동시법 혹은 2단계법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동시법으로 식립한 환자에서는 4-6개월 후에 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2단계법으로 식립한 환자에서는 골유도재생술 후 4개월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다시 4개월 후에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위 환자들의 임상증례를 보고하려 한다.

### 연구결과

골유도재생술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에서 2차수술시, 동시법과 2단계법에 상관없이 모두 임플란트 주위에서 유의할만한 신생골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결론

골유도재생술은 동시법과 2단계법 모두 임플란트 식립시 결손부의 재건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